

●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5.90원 상승한 1,355.90원에 마감

1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5.90원 상승한 1,355.9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종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00원 상승한 1,351.00원에 개장했다. 장 초반부터 환율은 네고 물량 유입에 하락하여 1,348.50원까지 저점을 낮췄다. 다만, 결제 수요 유입에 상승 전환하며, 1,355.90원에 종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 장중 변동 폭은 8.8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44.03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1351.00	1359.50	1348.50	1355.90	1352.6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937.07	948.28	935.13	945.03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591.18	1600.91	1588.99	1600.76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2.44	-7.84	-15.52	-28.5
결제환율(수입)	-2.1	-6.88	-13.59	-24.99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 가능

금일 전망

글로벌 달러 약세에...1,350원대 중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6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355.90) 대비 0.55원 상승한 1,353.8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도 연준 금리인하 기대에 따른 달러 약세에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5월 구인 건수는 776.9만건으로 예상치(730.0만건) 및 전월치(739.5만건)를 상회했다. 미국 6월 제조업 PMI는 49.0으로 기준치(50.0)를 하회했으나, 예상치(48.8) 및 전월치(48.5)를 웃돌았다. 한편 파월 연준 의장은 7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차단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하며, 관세인상 관련 데이터를 매 회의마다 살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기간 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며, 일본에 대한 관세 위협 발언을 했다. 미 경제지표 영향 등에 미국 2년물은 5.20bp, 10년물은 1.50bp 상승해 각각 3.775%, 4.2

44%를 기록했다. 달러인덱스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도 연준 금리인하 기대 및 관세 위협에 약세를 지속하며, 0.13 하락한 96.65로 마감했다. 금일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에 동조하여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증시 외인 순매수 기조 연장 및 수출업체 네고 물량 등도 환율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수입 결제 등 달러 저가매수 수요는 하단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49.80 ~ 1359.40 원
체크포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759.9 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55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美 다우지수 : 44494.94, +400.17p(+0.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25.16 억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0897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